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

최 인 경(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 김 정 민(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지지, 또래관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과 경기 소재의 5개 중학교 1, 2학년생 총 1361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é 사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 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유형의 차이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의수준과 근접하게 나타나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상호작용이 빈번한 게임 혹은 채팅 보다 정보검색이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불안과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지지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불안 중집단의 경우만이 인터넷 사용이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전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안 중집단의 인터넷 사용이 또래관계 중 정서적 안정, 도움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불안 상집단의 인터넷 사용은 갈등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인터넷 사용, 사회적 지지 및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장면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